

1. 세 분의 기술진을 인터뷰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처음 '극장에 귀신이 있다'는 자료를 보여주었던 것이 기억난다. 극장의 공간, 대학로라는 공간을 둘러싼 구체적인 자료와 사실 등을 연결하는 방식에서 그간 오석근 작가가 쌓아왔던 작업의 방식들의 노하우가 느껴졌다. 처음 이 작업을 시작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다.

귀신, 유령은 그간 해온 작업의 중요 키워드입니다. 역사 뒤에 있는 이들, 기록되지 않았거나 다양한 이유로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신, 유령으로 표현해 왔습니다.

어린 시절의 잊을 수 없는, 공통의 기억을 모아 제작한 '교과서(철수와 영희)(2005-2008)'가 '역사 다시 쓰기' 등 현재의 작업 방식을 구축하는 시작점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후 어린 시절의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당연하다고 여겼던 많은 것에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을 거쳤더니 어느 순간 도시, 공간, 역사, 기억, 자료 등을 상호 연결해 풀어내는 것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주변에 건축가, 역사학자, 연구자 등 다양한 동료와 선생님들이 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사진을 중심으로 이러한 것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작업을 시작한 계기도 전시의 주제 '아르코예술극장의 40년 역사를 다시 쓰기'에 맞게 '극장의 주인은 누구인지에 대한 대답을 찾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 세 기술진의 이야기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오석근 작가가 던진 질문들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당신의 작업을 보며 '사회학자와 역사학자'라는 책이 떠올랐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서도 기술의 점진적 변화와 결정적인 순간들을 동시에 물어보는 듯한 뉘앙스에서, '질문하는 작가'로서 오석근 작가가 이 세 분의 대화를 통해 가장 알아내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나.

사진을 포함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들의 삶이 급격하게 바뀌는 때가 있었습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와 IMF 등 시대적인 변화가 그러한데 이를 어떻게 적응하고 극복해 나아가느냐에 따라 삶의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이미 세상에서 사라져 버린 직업, 서서히 소멸 예정인 직업까지 모두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더욱이 과거 아르코예술극장의 기술 스태프는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공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기술을 계속해서 체득해야 했던 기술직 노동자 그리고 예술가들과 협업하며 작품을 자기 언어로 해석하고 표현해야 하는 예술가의 역할까지 수행했던 존재라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기에 아르코예술극장의 기술 스태프들의 삶은 절대 쉽지 않았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세분을 포함한 기술 스태프들이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고민이 있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자세하게 듣고 싶어서 그렇게 질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즉 스태프들의 이러한 행위가 공간 즉 극장에 어떤 흔적과 변화를 만들어 왔는지 그 축적된 유무형의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3. 이제껏 당신과 일을 하며, 사진을 찍기도 하지만 다양한 아카이브 프로젝트, 긴 시간을 들인 리서치를 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다. 지금까지 했던 두 가지 정도의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이야기해줄 수 있을까? 당신에게 '아카이브' '아카이빙'이란 무엇인가?

2018년부터 지역의 여러 예술가와 함께하는 '동인천탐험단'이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건축가, 연구자(큐레이터), 시각예술가로 구성되었고 근대부터 형성된 건축, 도시, 생활문화 등을 기록, 연구, 공유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 기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예술가들의 기록방식은 어떠해야 하는가 등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는 시간이 많았고 각자의 기록, 연구 방식과 관련 분야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탐험단의 조사, 연구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먼저 사전 연구를 하신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시민들과 함께 여러 번 답사를 진행하고 관련 원고를 정탁을 합니다. 탐험단은 기초자료를 만들고 모인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 연구, 분석합니다. 이후 모든 자료를 엮어 책을 만들거나 강연을 만들거나 각자의 예술작업 등으로 활용합니다. 작년 '신흥동 일곱주택'이란 책이 나왔고 내년 초에 '산곡동 영단주택'이라는 책이 나올 예정입니다.

또 하나의 아카이브 프로젝트는 이번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는 '더 네임즈:하나의 음반이 만들어지 까지(thenames.site/)'입니다. 저의 또 다른 프로젝트팀 '복숭아꽃'에서 진행한 작업이고 음악사에서 주목받지 못한 레이블, 협업예술가 등을 조망하고 기록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트로트 고고, 사투리 디스코 등을 새로운 장르로 돌풍을 일으킨 안타음반, 독일 유학에서 돌아온 구본창 선생님의 음반커버작업, 요절한 싱어송라이터 장덕의 삶과 음악을 담아냈습니다.

'아카이브'는 동료(고경표 기획자) 말을 빌리자면 '통시적 역사를 쓰기 위한 자료 모음'이라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그 의미가 더 넓게 쓰이고 있고 저 또한 다소 넓은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해왔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저는 '아카이브'란 무엇(기록, 조사, 작업)을 하기 위해 준비 해야하는 가장 기초적인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4. 좌대에 배치된 사진들을 당신이 선별했다. 극장을 둘러싼 예술과 노동 현장의 측면에 주목한 사진들을 선별했다고 느꼈다. 한편 당신은 사진을 많이 '찍는' 사람인데 이번에 많이 찍지 않았다. 그 이유가 있을까? 당신은 극장 2층에서 무엇을 보았나?

관련 사진이 많고 그 안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풀 수 있다면 사진을 또 찍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작권을 소유하기 위해 다시 촬영을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사용허가를 받고 그 기록을 잘 활용하는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전조사, 연구해온 이들에 대한 감사와 존중이며 '덧씌우는' 행위를 통해 그들의 노력을 희석하지 않기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라지기 전, 변화하기 전의 모습은 당연히 현시점에서 사진으로 담을 수 없습니다. 사진은 시간을 담는 기술이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의미가 숙성 될 수 밖에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진 촬영이 필요한 경우 대부분 기존 기록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자료의 퀄리티에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첫 질문에 답 했듯이 기록에 기록을 쌓고 역사를 전보다 다양하고 넓게 또는 다르게 확장해 나가는 것을 보고 극장 2층에서 보고 싶었습니다.